

여자골프 세계 랭킹 한국 1~3위 싹쓸이

고진영 17개월째 1위...김세영·박인비 2·3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고진영(25)이 2020년 내내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고진영은 29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진영은 올해 1월 7일자 세계랭킹에서도 1위였고, 이후 매주 발표된 랭킹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2019년 7월부터 17개월째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LPGA 투어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4개 대회에만 출전했다.

북미전인 벨리컨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4위에 그쳤지만, 불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5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공동 2위,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주 대회가 열리지 않아 여자골프 세계랭킹은 변동이 없다.

올해 세계랭킹 5위로 출발한 김세영(27)은 세계랭킹 2위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김세영은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과 벨리컨 챔피언십에서 연달아 우승하고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거두며 랭킹을 끌어올렸다.

세계랭킹 3위도 한국 선수다. 박인비(32)는 세계랭킹 15위로 2020년을 출발, 한때 17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세계랭킹 3위로 한 해를 마감했다.

박인비는 ISPS 한다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고 3차례 준우승을 거두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넬리 코르다(미국), 대니얼 강(미국), 브룩 헨더슨(캐나다), 하나오카 나사(일본), 이민지(호주)가 4~8위를 차지했고, 김효주(25)와 박성현(27)이 9~10위에 올랐다.



CME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든 고진영.

28일 발표된 남자 세계랭킹에서는 더스틴 존슨(미국)과 온 랍(스페인),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1~3위를 유지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22)가 18위라는 가장 높은 순위에서 2020년을 마쳤다. 75위인 안병훈(29)과 86위인 강성훈(33), 95위인 김시우(25)가 톱100에 들었다.

내년 한국오픈 우승자, 디오픈 출전권 못 받아

코로나 여파 올 106명 출전권 확보 켈리파이프 시리즈 대회 운용 안해

한국오픈 골프 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대회 디오픈 출전권이 주어진다.

반드시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아니라도 디오픈 출전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미 디오픈 출전권이 있는 선수가 1, 2위를 차지하면 차순위자에게 넘어간다.

2019년 대회 때는 디오픈 출전권을 이미 확보한 재즈 제인과타난드(태국)가 우승하고 3위 김찬(미국)도 디오픈 출전권을 갖고 있어 준우승한 황인준(46)은 물론 4위 장동규(32)도 디오픈 출전 기회를 잡았다.

한국오픈은 디오픈 켈리파이프 시리즈 대회라서 그렇다.

디오픈 켈리파이프 시리즈는 세계 각국 투어 대회 가운데 몇몇 대회를 지칭해 상위 입상자에게 디오픈 출전권을 주는 제도다. 한국오픈은 2017년부터 디오픈 켈리파이프 시리즈에 포함됐다.

그러나 내년 한국오픈에서는 우승해도 디오픈 출전권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디오픈이 취소한 R&A가 내년에는 켈리파이프 시리즈 대회를 통한 출전권

은 운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출전권을 이미 확보해 내년 대회에도 출전권이 인정되는 선수가 무려 106명에 이르러 내년 대회에는 출전 선수 자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오픈뿐 아니라 일본프로골프투어와 아시아프로골프투어를 겸하는 싱가포르 오픈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존 디어 클래식, 로켓 모기지 클래식 등 켈리파이프 시리즈 대회는 다 같은 처지다.

하지만 국내 선수의 유일한 디오픈 출전 관문이 디오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더 크다.

세계랭킹 등 다른 경로로 국내 선수가 디오픈 출전권을 따기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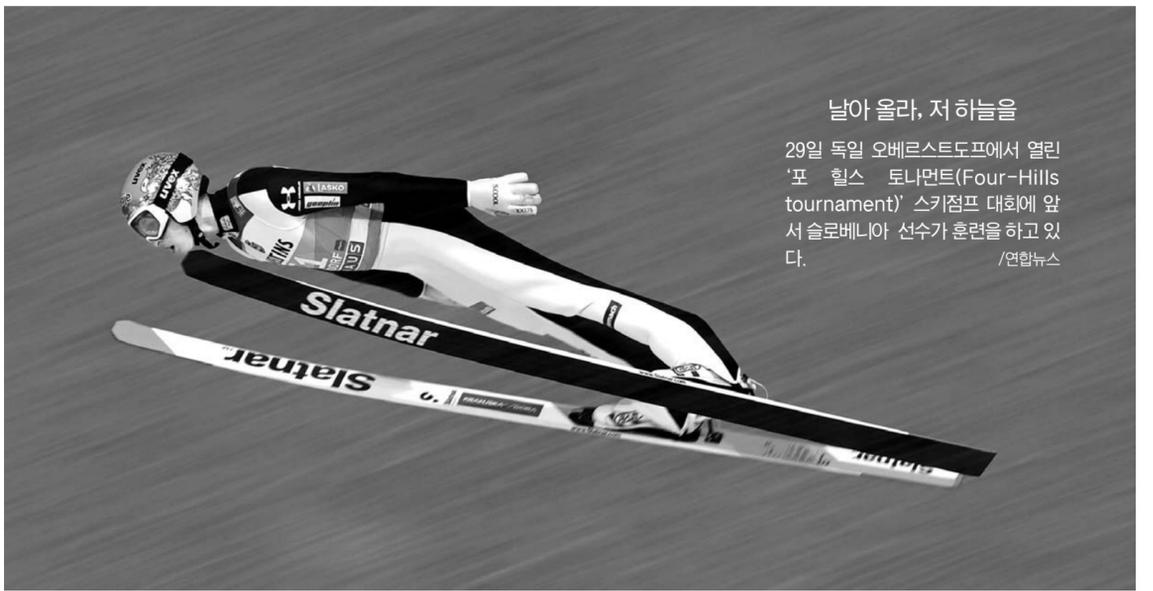
대신 올해 치러진 켈리파이프 시리즈 대회에서 단 출전권은 내년에도 인정된다.

김주형(18)이 지난 1월 싱가포르 오픈 4위를 차지해 단 디오픈 출전권은 내년에도 유효하다.

한국오픈이 예정대로 6월에 열렸다면 상위 1, 2위 선수는 내년 디오픈에 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오픈을 주관하는 대한골프협회는 "아쉽지만 2022년에 다시 디오픈 출전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오픈은 6월 중에 치를 예정이며 디오픈은 7월 15~18일 열린다.



날아 올라, 저 하늘을

29일 독일 오베르스도르프에서 열린 '포 힐스 토너먼트(Four-Hills tournament)' 스키점프 대회에 앞서 슬로베니아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무패 행진 마감

슈팅 51개 중 27개 막혀 부산시설공단에 24-29 패

광주도시공사의 무패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팀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에서 무패 행진을 5경기로 마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부산시설공단에 24-29로 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10여분 동안 부산을 압도

했다. 이후 불운이 겹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내줬다. 후반들어 강경미, 김지현, 원선필이 득점을 올리며 추격에 나섰다, 부산 골키퍼 오사라의 선방에 막혀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오사라는 이날 경기에서 상대 슈팅 51개 가운데 27개를 막아냈다. 오사라의 세이브 27개는 코리아리그 한 경기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이다. 공교롭게도 삼척시청 박미라가 2017년 4월 역시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경기 27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설상가상 강경민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마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3승 3무 3패로 2020년을 리그 4위로 마감했다. 개인기록 부문에서는 강경민이 87득점으로 득점 부문 1위에 랭크됐다. 골키퍼 우하림은 87세이브로 이 부문 4위에 올랐다. SK코리아리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장소를 강원도 삼척시민체육관으로 옮겨 정규리그 일정을 이어간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신인 선수들이 될 수 있고, 자유계약선수는 1월 2일부터 새 팀에서 출전이 가능해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만희 광주시축구협회장 당선

"5개 자치구에 유소년클럽 만들어 지역 프랜차이즈 선수 키우겠다"

최만희 전 광주FC 초대감독이 광주시축구협회 2대 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단독 출마한 최만희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최 당선인은 광주 출신으로 동성중과 전남기계공고·중앙대를 졸업한 뒤 선수로 활약했다. 축구

U-16, U-19 국가대표, 전북 현대, 수원 삼성 등을 거친 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FC 초대 감독을 맡았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이사, 2002광주월드컵조직위원회,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 파주국가트레이닝센터장을 역임했다. 최 당선인은 "광주지역 축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뿌리를 기반으로 한 연계 육성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임기동안 5개 자치구에 광주FC 유소년 클럽을 만들어 지역 프랜차이즈 선수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 승률' 신진서, 2020 바둑대상 MVP

최정, 4년 연속 여자기사상

한국 바둑 역대 최고 승률을 기록한 신진서(20·사진) 9단이 2020년 최고의 기사 영예를 안았다.

한국기원은 신진서가 바둑 담당 기사 투표에서 93.55%, 네티즌 투표에서 78.24% 등 합계 88.95%의 압도적인 지지로 2020 바둑대상 최우수기사상(MVP)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76승 10패를 기록한 신진서의 승률은 88.37%에 이른다. 이는 1988년 이창호 9단이 세운 기존 연간 최고 승률 88.24%(75승 10패)보다 0.13%포인트 높다.

이 기간 신진서는 메이저 세계대회인 LG배와 삼성화재배에서 각각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울러 응씨배 4강 진출, 춘란배 8강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 맹활약했다.

국내 대회에서도 GS칼텍스배를 3년 연속 제패



하고 쏘팔 코사놀 최고기사전 정상에 오르는 등 4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바둑 랭킹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신진서가 바둑대상 MVP로 선정된 것은 2018년을 이어 개인 두 번째다. 이번 수상으로 신진서는 순금 10톤 메달을 목에 걸었다. MVP뿐 아니라 신진서는 남자 다승상과 승률상, 연승상(28연승) 등 전 부문을 싹쓸이했다. 100% 온라인 투표로 결정된 인기상도 차지했다. '바둑 여제' 최정 9단은 4년 연속 인기상 수상은

놓쳤지만, 4년 연속 여자기사상을 받았다. 최정은 올해 허림배 프로여자국수전 4연패, 한국제 여자기사전 3연패 등 국내 여자대회에서 7연승 우승을 달성했다. 남녀 통합대회에서도 용성전 16강, 맥심커피배 8강 등으로 활약했다. 올해 54승 26패, 승률 67.5%를 기록한 최정은 여자 기록 부문에서 다승상·승률상·연승상(16연승)을 가져가며 여자바둑 최강자 위용을 과시했다. 시니어기사상은 NH농협은행 시니어바둑리그에 4년 만에 출전해 정규리그 12승 1패로 소속팀 서울 데이터스트림즈를 창단 첫해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끈 유창혁 9단이 차지했다. 최우수 신인상은 20세 이하 바둑 기사로 출전하는 글로벌비즈 세계바둑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문민중 3단과 한국여자바둑리그 우승팀 보령머드 김경은 2단이 각각 남·여 수상자로 결정됐다. 공로상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바둑진흥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돌아온 바둑황제' 조현현 9단과 호수에 바둑을 보급하는데 힘쓴 고(故) 한상대 교수가 받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윈더우먼 1984
2관	조제
3관	이웃사촌, 러브 액츄얼리
4관	윈더우먼 1984
5관	윈더우먼 1984, 도굴
6관	윈더우먼 1984
9관	조제
7관 씨네카를	런, 나이팅게일
8관 씨네카를	도굴, 러브 액츄얼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즐거움 문화산책